

도, 고병원성 AI 피해 농가·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살처분 농가·영업 제한 업체 대상 입식·운영 자금 최대 10억 원 지원 금리 1.8%·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말까지 시군 통해 신청 접수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농가와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된 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가축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 2개 분야로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융자금은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가축입식자금 지원사업은 AI 방역조치로 닭·오리를 살처분한 농가를 대상으로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입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축종별 지원단가를 적용해 농가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AI 발생농가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제외되며, 예방적 살처분 양성농가는 하반기 예산 여건에 따라 후순위로 지원될 예정이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AI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을 제한된 업체를 대상으로 원료구입비, 인건비, 운송비 등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업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경영비를 고려해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와 업체는 올해



<사진=전북도>

말까지 해당 시·군(읍·면·동)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격요건 검토 등을 거쳐 융자가 실행될 예정이다.

민선시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업체들이 조기에 경영 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버팀이음프로젝트' 공모 선정

고용안정 국비 10억 추가 확보 화학·고무업 근로자 패키지 지원

전북도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추가 공모에서 '버팀이음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버팀이음프로젝트'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화학물질 및 고무제품 제조업 근로자가 대상이며, 도는 급격한 고용 충격이 근로자의 일시적 생계 불안이나 이탈로 직결되지 않도록 맞춤형 안심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업이 신청하되,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역화폐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해 정책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지역화폐 활용을 통해 근로자의 가계 안정은 물론 품목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까지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임금 형태의 '근로자 안심패키지(최대 50만 원)'와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새출발희망 지원금(최대 50만 원)'이 핵심이다.

한편 도는 이번 추가 공모에 앞서 올해 초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기초이음프로젝트' 국비 42억 원을 이미 확보한 바 있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지지원실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인력의 유입 촉진 및 고용 활력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자살예방사업 강화...24시간 대응체계 가동

2026 자살예방대책 본격 추진 예방 인력·위기대응센터 확대 유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전북자치도는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충족한 지역사회 생명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자살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2024년 도내 자살 사망자 수는 562명(자살률 32.3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2025년 자살예방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4대 과제 22개 전략) 집중 추진한 결과, 자살 사망자 수를 446명(잠

정치)으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대비 20.6%(116명)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생명안전망 구축과 현장 중심 대응체계 강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군 조기 발견 ▲24시간 위기대응 ▲응급실 사후관리 ▲자살유족 지원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위기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도와 14개 시군 부단체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 추진력을 높인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전

담 인력을 기존 47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해 고위험군에 대한 밀착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24시간 위기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평일 주간에는 기초센터가, 야간과 주말·공휴일은 광역센터가 대응을 맡아 시간대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살 시도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접 주소를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도 확대된다. 현재 5개소인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6개소로 확대해 응급실 단계부터 전문 인력이 조기 개입하고,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 관리로 자살 재시도 위험을 낮춘다는 계획이

다.

또 2026년 7월부터 자살유족의 심리·법률·행정 처리를 통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24시간 초기 발굴 및 밀착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생명지킴이 교육 확대, '9:10 캠페인'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도 나설 방침이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충족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생활밀착 전북형 '착!불공약' 제시

관리비 부담 완화·금융소비자 보호 전통시장 옥서기 환경 개선 추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19일 도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달고 체감도 높은 변화를 만드는 '내 생활에 착!불'은 공약(이하 착!불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도민의 일상 속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데서 시작된다"며 "도민 삶에 바로 와닿는 착!불 공약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착!불 공약은 민주당 중앙당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해 정책으로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민생 공약이다.

이 후보가 이번에 제시한 착!불 공약은 △공공주택 관리비 부담 완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전통시장 옥서기 환경 개선 등이다.

도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전북형 착!불 공약이다.

이 후보는 우선 공동주택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



이원택 후보

다고 약속했다.

관리비 공개와 상당 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노후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냉난방비 등 관리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매달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 요인을 줄이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실수로 고금리 예·적금을 해지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예·적금 착오 해지 구제 지원에도 나선다.

중앙당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금융소비자 상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생활비 부담은 낮추고 일상의 편의는 높여 도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민생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현장 점검

김중훈 부지사, 고창·정읍 방문 전북 지급률 전국 두번째 기록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가 19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고창과 정읍을 찾았다.

김 부지사는 이날 고창군 고창읍과 정읍시 수성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폈다. 신청·지급 절차상의 불편 사항과 현장 혼잡 여부도 확인했다.

오프라인 지급수단인 선불카드 등의 재고가 충분한지 점검하고, 접수 창구와 대기 공간을 살피며 더워지는 날씨에

대비해 충분한 실내 공간 확보를 당부했다. 1차 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 주민은 2차 기간에도 신청한 점을 적극 안내해 한 명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도 요청했다.

고령자 등 가동이 불편해 오프라인 신청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신청 과정에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고창군은 모바일·카드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도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용 기한을 명시해 기한 내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2차 지급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대상은 가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총 120만 2,903명이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나, 1차 지급 대상자는 요일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2차 지급 첫날인 18일 기준 지급률은 25.7%를 기록해 전국에서 2번째로 빠른 집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TF를 구성하고 전 과정을 신속 진행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해 왔다.

김중훈 부지사는 "이른 시일 내 지원금 신청·사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박희승,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 법제화 추진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을 제도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이란 보건복지부가 노인 돌봄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봉사시간 실적을 적립·관리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로 할 때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노인에게 대한 지역사회 돌봄을 보완하려는 취지"라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케어뱅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

거가 부재하고, 전국 수행기관이 57곳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기존의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수요를 따라가기 역부

족"이라며, "노인 돌봄 봉사활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돌봄 참여를 통한 사회적 연대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불법 주정차 금지



시속 30Km이하 서행



횡단보도 일시정지



급제동 급출발 금지



전주 호성작은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주간활동센터 방문
발달장애인과 독서 활동
문턱 낮춘 독서 복지 실현**

전주시 호성작은도서관(관장 김혜순)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독서 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도 생활 가까운 곳에서 책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지난 1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호성동에 위치한 두드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전주시 호성작은도서관은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전주시>

지난 13일 진행된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센터 이용자 10여 명과 함께 독서 활동과 종이접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책을 매개로 서로 소통하며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혜순 관장은 "찾아가는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책과 문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독서를 접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호성작은도서관은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 '작은 음악회' 프로그램을 비롯해 독서모임, 자수모임 등 다양한 주민 참여 동아리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정혜민 기자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이씨' 특별전

'이씨들에 핀 아름다운 벚'

전주역사박물관은 오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기념 특별전 '이씨들에 핀 아름다운 벚'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해 도 지정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주 이씨 사정공과(마전) 중중 문서'를 중심으로 전주 이씨 집성촌인 마전마을과 이씨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전시는 크게 △호적류 고문서를 중심으로 마전마을에 뿌리내린 전주 이씨의 이야기 △교지와 분재기 고문서를 중심으로 서부신시가지의 넓은 이씨들의 주인과 관련된 이야기 △도 지정 유형문화유산을 지정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유산으로 가는 길' 영상 △소지류 고문서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마전마을의 유지'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또한 전시 첫날에는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김영준 전북대학



교 이재연교수 연구교수를 초빙해 '전주의 명문가 마전 이씨 고문서 퉁아보기'를 주제로 전시 연계 특별 강연과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의 해설과 함께 특별 전시를 관람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분재기와 준호구, 소지 문서를 통해 역사적 맥락에서 조선 후기 전주 효자들에 거주한 사람들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으며, 전시를 기획한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통해 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3D 식품프린팅 발전 가능성 모색

**푸드테크 3D 식품프린팅 산업
심포지엄 개최**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식품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는 푸드테크 3D 식품프린팅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3D 식품프린팅이란 식재료를 잉크처럼 활용해 디지털 설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요리를 만드는 기술로, 개인별 영양 설계와 대체육 개발, 창의적인 요리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푸드테크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김상남 원장)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은미 원장)은 19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푸드테크

분야 유관기관과 대학,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테크 3D 식품프린팅 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개인 맞춤형 식품과 디지털 기반 식품 생산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 3D 프린팅 기술의 개발 현황과 산업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식품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식품 3D 프린팅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화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박보람 국립식량과학원 박사는 '식품 3D 프린팅 기술 동향 및 연구 개발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식품 3D 프린팅 기술의 최신 연구개발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이산홍 ㈜엘에스비 대표는 '맞춤형 푸드 프린팅 산업 적용 사례 및 사업화 가능성'을 주제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와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 소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병근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좌장으로 박보람 국립식량과학원 박사와 이산홍 ㈜엘에스비 대표, 이인환 충북대학교 교수, 이윤희 전남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펼쳐졌다.

'3D 식품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패널들은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의 푸드테크 산업 적용과 응용, 공감대 확산 필요성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패널들은 식품 3D 프린팅 기술이 개인 맞춤형 식품 생산과 고령친화식품, 기능성 식품, 대체식품 분야 등 미래 식품산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주지역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김상남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푸드테크 3D 식품프린팅 기술의 산업적 가능성과 미래 식품산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식품·농생명 산업 기반과 첨단 푸드테크 기술을 연계해 미래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 덕진구,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추진

**6개 권역 69만5000㎡ 규모 대상
총 3회에 걸쳐 일제 정비 실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기섭)는 정원도시 전주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단정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가로수와 시설녹지, 가로화단 등 녹지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해 수목의 원활한 생육을 돕고, 도심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구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사업 구간을 △동부 △중부 △북부 △에코 △혁신 △만성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해 동시 발주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잡초의 생육이 왕성한 5-8월 중 2차례, 오는 9-10월 중 1차례 정도 집중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작업 내용은 녹지시설물 내 예초 작업과 주변 환경 정비 등으로, 이를 통해 도로와 연계된 덕진구 전역의 녹지 공간을 빈틈없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섭 덕진구청장은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은 시기성이 중요한 만큼 권역별 동시 정비를 통해 신속하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작업 중 도로변 주차차량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한 작업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사랑의열매, 전주시 우수 기부기업 5곳에 '감사'

(주)휴비스·범무법인 백제 등 5개사

평소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해온 5개 기업이 전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명규, 이하 사랑의열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랑의열매는 19일 전주시청에서 전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물품 기부와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 온 기업들을 격려하고, 자발적인 기부 문화 확산을 독려하기 위한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우수 기부기업은 △(주)휴비스 전주공장 △범무법인 백제 △전북도시가스(주) △주식회사 성실 △하나은행 광주전북영역본부 등 총 5개사다.

이들 기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공동체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전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주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업 및 유관기관들과의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기부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할 수 있

/정혜민 기자

전주 덕진구, 교량 보수·보강 '박차'

삼례교 내진보강·소양교 보수 등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기섭)가 주요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시설물의 공용 연한을 늘리고, 시민들의 안전도 확보키로 했다.

구는 올해 총 19억1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은2교와 소양2교 등에 대한 교량 보수·보강 및 삼례교(신교)와 소양교 등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구는 만경강을 가로지르는 삼례교(신교)에 대해서는 올해 약 4억3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진 발생 시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한 교량반침 교체 등 내진 보강 공사를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구는 시민들이 교량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월2교의 신축이음 교체 공사를 완료했다.

이외에도 구는 덕진구 관내 교량에 대해 집중 안전 점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

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계획을 추가 수립 및 시행하는 등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기섭 구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남은 공정도 예산 확보와 병행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주거취약계층에 후원금 전달

금강유역본부, 300만원 기탁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본부장 이종식)는 19일 가정의 달을 맞아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지역사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2번째 이어진 것으로, 사회공헌기금 및 금강유역본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으로 마련됐다. 금강유역본부 임직원들은 경제적 어려

움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후원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민·관 협력 '수요 맞춤형 주거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에너지 절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에너지 안전키트' 제작·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혜민 기자

전북중기청, 모두의 챌린지 '뷰티'·'플랫폼' 공고

협업 자금 1억 및 해외 유통망지원... 내달 8일까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은 '뷰티', '플랫폼' 분야 화장품, 인공지능 창업기업 프로그램을 19일 공고했다.

모두의 챌린지는 신산업 창업기업 성장을 위해 전략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과 분야별 선도기관 간 기술실증(PoC), 판로 확보 등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AX(인공지능 전환), 방산, 로봇 등 분야별로 진행 중이다.

공고 분야는 화장품 대기업의 인프라(기반) 및 데이터(자료)와 창업기업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해외 시장에서 K-뷰티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수요기업으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등 3개 대기업이 참여해 뷰티 산업 가치사슬(Value-Chain)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 혁신 및 고객 경험 고도화 등을 위한 협업을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총 15개사를 선정한다. 더불어 성분·제형 등 수요기업 자료를

활용해 연구·제조·마케팅(판촉) 영역 등에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지원체계) 개발을 지원한다.

선정기업엔 최대 1억원 협업 자금과 함께 대기업 해외 유통망과 마케팅 채널(판촉 창구)을 통해 판로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플랫폼 기업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정보)와 서비스 인프라(기반), 창업기업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 디지털 경영 등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사업화를 촉진한다.

수요기업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토스 등 3개 대기업이 참여한다. 또 인공지능 기반 수요·매출·마케팅

(판촉)·금융을 통합한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최적화 솔루션(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을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총 10개사 선정과 플랫폼 기업의 소상공인 매출·운영 자료를 분석·활용해 고객수요와 매출 예측 등 소상공인 경영 전환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지원체계) 개발과 최대 1억원의 협업 자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우수 성과를 수요기업 플랫폼에 탑재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공고일인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사진=고창선운산농협>

선운산농협, 밀반찬 나눔 봉사 지원

취약계층 조합원 복지 증진

전북 고창 선운산농협이 2026년 조합원 복지 증진을 위해 취약계층 조합원을 위한 밀반찬 나눔 봉사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고령 농업인 및 취약계층 등 식사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선운산농협 김기욱 조합장은 아산농가주부모임(회장 김정심)과 함께 직접 밀반찬 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나서 밀반찬 및 열무얼갈이김치 나눔 봉사에 나서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했다.

조합장 김기욱은 반찬 준비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회원들과 함께 채소를 다듬고 씻으며 열무 얼갈이 김치를 담그는 작업에 정성을 보였으며, 바쁜 일중에서도 봉사 현장을 함께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

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모습은 조합원과 농업이 함께 하고, 조합원에게 다시금 돌려드리는 생활밀착형 환원 사업으로 농업인의 생활비 부담을 더는 체감도 높은 복지 실현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이번 봉사의 결과는 농번기로 인해 끼니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전달이 된다.

이에 선운산농협 김기욱 조합장은 "농번기에는 취약계층의 생활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우리의 작은 반찬 및 열무얼갈이김치 나눔 봉사에 나서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동농가주부모임과 함께 지역 내 다양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농진청 "고추 바이러스병, 미리 알고 예방해요"

'5대 바이러스병' 맞춤형 관리 방안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고추 아주심기 시기를 맞아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주요 바이러스병 특징과 예방관리 지침을 소개했다.

우리나라 고추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물바이러스는 매개충이 전염하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잠두위조바이러스2(BBWV2), 고추모틀바이러스(PepMoV)와 접촉으로 전염되는 고추약한모틀바이러스(PMMoV) 등이 있다.

따라서 전염 경로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

바이러스병에 걸리면 고추 품질과 수확량이 크게 떨어지지만, 치료 약제가 없으므로 바이러스병에 걸리지 않게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순이 까맣게 타고 잎에 동그란 무늬가 생겨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갈라병'으로 불리며, 꽃노랑총채벌레가 주요 매개충이다. 잎에 원형

반점이 생기고 심하면 새순이 까맣게 괴사한다. 열매에 얼룩이 생기면서 떨어지기도 한다.

꽃 속에 숨는 총채벌레 특성을 고려해 총채벌레 밀도가 급증하기 전 5월부터 계속해서 방제한다.

이때 약제 저항성이 생기지 않도록 2~3가지 농약을 번갈아 사용한다. 아주심기 초기에 총채벌레를 유인하는 파란색 끈끈이 트랩(트랩)을 설치해 총채벌레 발생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잎이 노랗게 얼룩덜룩하고 고추가 잘 안 자라요"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잠두위조바이러스2(BBWV2), 고추모틀바이러스(PepMoV)= 세 바이러스 모두 진딧물로 전염된다.

아주심기 전후 철저한 제조 작업으로 진딧물을 제거한다.

아주심기 초기 해충이 피하는 반사필름을 설치해 진딧물 발생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진딧물은 번식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날개 달린 진딧물(유시충)이 날아오는 시기에 맞춰 전용 약제를 뿌린다.

"벌레 약을 열심히 뿌려도 병이 계속



<사진=농진청>

옆으로 번져요" 고추약한모틀바이러스(PMMoV)= 종자나 토양, 농작업 중 식물체 간 접촉으로 전염된다.

앞에 모자이크 증상이 나타나며 과실이 울퉁불퉁해진다.

농가에서는 검증된 깨끗한 고추 종자를 사용하고, 기계적 전염을 막아야 한다. 결순 따기, 지주대 묶기 등 농작업 시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식물은 노균으로 표시하고 마지막에 작업한다. 작업 후에는 반드시 가위 등 도구를

70% 알코올, 탈지분유, 제산인산나트륨 용액 등으로 소독한다.

바이러스는 식물체 내부로 침입하면 제거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격리가 유일한 대책이다.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식물은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진단을 의뢰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농작업을 멈춘다. /김영태 기자

정읍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현장 투입

하루 단위 50명 배치... 인력난 해소 기대

정읍시가 올 4월부터 5월까지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하루 단위로 일손을 돕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을 농촌 현장에 단계적으로 배치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은 농가에서 숙소를 직접 제공하기 어렵거나 짧은 기간 인력이 필요할 때 하루 단위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39명을 도입해 1817개 농가에서 5068건의 작업을 도운 데 이어 올해는 50명으로 인원을 늘렸다.

이들은 현재 274개 농가에 파견돼 508건의 일손을 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엔 배치한 인력 가운데 21명은 지난해 정읍에서 일했던 우수 근로자다.

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재입국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 29명을 함께 묶어 농작업 효율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작업 시작 3일에서 5일 전 생골농협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3-538-5554)로 신청하면 된다.

인건비는 한 사람당 하루 11만원이다.

일반적인 시중 인건비보다 저렴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형 사업과 별개로 시는 올해 상반기 법무부 배정심사 협의회를 거쳐 252개 농가에 지원할 계절근로자 1277명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현재 680여 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130여 개 농가에 배치를 마치는 등 인력난 해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사진=정읍시>

정읍시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공형 공공 체계를 유지해 농가들이 온전히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길 바라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늘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사진=정읍시>

정읍시 '씨 없는 수박' 당도 향상 총력

정읍시가 지역 대표 특화작목인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의 5월 하순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30헥타르(ha) 규모의 32개 재배 농가에 고당도 유지를 위한 세심한 생육 관리를 당부했다.

정읍 지역의 씨 없는 수박 주요 품종은 흑사랑, 블랙벨, 조생흑미 등이다. 보통 1, 2월에 모종을 심어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에 열매를 맺는다. 이후 5월 하순부터 6월 하순까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하한다. 이 수박은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을 자랑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지역 대표 여름 과일로 꼽힌다.

최근 낮 기온 상승으로 비닐하우스 내부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열매의 당도가 떨어지거나 병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시는 출하 전 철저한 품질관리로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굳히고자 현장 기술지도에 나섰다. 농가들이 고온기에도 안정적으로 수박을 생산하고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 요령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과실 비대기에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반면 익어가는 성숙기에는 관수량을 서서히 줄여야 열매 안에 당분이 잘 쌓인다. 질소 성분의 비료 사용을 줄이고 칼륨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당도 향상에 효과적이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수확기 세심한 관리에 따라 씨 없는 수박의 당도와 상품성이 크게 달라진다"며 "현장 중심 기술지도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농식품부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불합리한 제도 개선... 50개 과제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50개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

회의에는 현장간담회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 중 현장제감도

와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확정된 과제는 △에너지전환과 균형 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민먹거리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민생 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0개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 성장의 선도하는 농촌 발전 △저수지·담수호 등에 수상형 태양광 설치 면

적 기준 완화, 행정안전부와 협업 햇빛 소득마을 조성 등 임차하는 저수지·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 재산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추진한다.

또 △햇빛소득마을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 거쳐 재산에너지지구 지정 절차를 의제 처리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의 농촌

창업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전북 타운홀미팅 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해 △농업진흥지역에서 음료·제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특화지구 특성에 맞게 설치하는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신고로 간소화해 농촌 특화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빈집철거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기원, 과수화상병 확산차단 '집중'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강우로 인해 습도가 올라와 과수화상병균 활동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업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증상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가지 등에서 괴상으로 율동해 비·바람, 매개곤충에 의해 인근 과원의 꽃·과실 등으로 확산되기에 전정, 적화 등 작업에 사용한 농작업 도구에 의해 먼거리까지 확산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업인은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하고, 과원 내 소독약 비치, 농작업도구 상시 소독, 외부 농작업자 등 과일출입자 관리, 작업내용, 소독여부 등 영농일지 작성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윤대순 기술보급과장은 "과수화상병은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초기에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외부인 과일 출입자제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잘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 고교생 4명 중 1명 '저체력'

상급 학교 진학할수록 우수 체력 비율 하락 저체력 학생 비중 급증

전북 지역 학생들의 기초 체력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열한 입시 경쟁에 내몰려 절대적인 신체 활동 시간이 줄어든 결과로, 학교 체육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19일 교육부 정보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의 '2026년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PAPS)'을 분석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력 우수 학생은 줄고 저체력 및 비만 학생 비율은 급증하는 역피라미드 현상이 확인됐다. 실제 도내 초·중·고교생 13만 8천여 명의 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의 1~2등급(우수) 학생 비율은 40.6%, 중학교는 45.7%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체력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이 비율은 32.9%로 하락했다. 반대로 학교 차원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4~5등급(저체력)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14.1%, 중학교 15.0% 수준에서 고등학교

진학 시 23.5%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고등학생 4명 중 1명꼴로 저체력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과체중과 비만을 가늠하는 평균 체질량지수(BMI) 역시 초등학교 20.4, 중학교 22.2, 고등학교 23.4로 상급 학교 진학에 비례해 짙어졌다. 이는 고등학교 진학 이후 수능과 내신 등 대입 준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생들의 절대적인 운동 시간이 부족해진 구조적 환경에서 기인한다. 정규 체육 시간마저 입시 과목 보충 수업이나 자습 시간으로 운영되는 일선 학교의 오랜 관행이 학생들의 체력 저하를 방치하고 부추겼다. 학생들의 기초 체력 저하는 학업 집중

력 하락과 면역력 약화로 직결되는 만큼, 단순 측정에 그치고 있는 현재의 평가 시스템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신체 활동을 의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내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는 "입시가 코앞인데 체육 시간에 나가서 뛰라고 하면 아이들도 불안해하고 학부모들 민원도 들어오는 게 현실"이라며 "사실상 수능 과목 자습 시간으로 암묵적 양해를 해주는 지금의 분위기에서 아이들에게 운동장에 나가 땀 흘리며 체력 저하를 막으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토로했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지역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성료

내달까지 총 3회차 공연

국립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학부장 이주봉)는 지난 14일 국립대학육성사업 'KNSU Insight+'의 일환으로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문화공연 프로그램인 '뫼마타버스킹' 1회차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역 내 예술인들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지역 문화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국립군산대학교와 호원대학교 재학생, 군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아티스트들이 함께 참여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문화예술로 연결되는 소통의 장이 됐다. 캠퍼스 공간을 활용한 열린 버스킹 형태로 진행돼 학생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버스킹은 총 3회차로 구성되

며, 회차별로 '말하는 대로', '응답하라 2010' 등 각기 다른 테마로 진행된다. 1회차 공연에는 국립군산대학교 동아리 '등대지기',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 '김기현&임아린', 군산 지역 아티스트 팀 '날이 무대에 올라 감성적인 공연으로 관객들을 대료시켰다. 공연 진행 총괄을 맡은 조유리 학생은 "처음으로 직접 공연을 기획하고 운영하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고민해 준비한 무대를 많은 분이 즐겨주셔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남은 회차 공연도 학생과 지역민이 어우러져 일상 속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뫼마타버스킹'은 앞으로 예정된 21일 2차, 내달 4일 3차 공연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아티스트와 테마를 선보이며, 지속적인 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군산=임근석 기자

전북교육청, 초등 6학년 '컴퓨터 기반 평가' 도입

"교사 평가권 침해 및 반쪽 시험" 우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컴퓨터 기반 총괄평가(CBT)를 도내 초등학교에 대대적으로 도입한다. 교육 당국은 학생 맞춤형 평가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학교 현장 일각에서는 디지털 기기 과의존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전북교육청은 19일 본청 청초나라 시청각실에서 1학기 초등 컴퓨터 기반 총

괄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이번 평가는 초등 6학년 국어, 수학, 영어 3개 교과를 대상으로 하며, 사전에 신청한 도내 145개 학교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종이 지필평가 대신 학생이 태블릿이나 컴퓨터로 문항을 풀고 제출하는 방식이다. 전북교육청은 CBT가 동영상 등 멀티 미디어를 활용해 실제 상황과 연계된 평가가 가능하고, 자동 채점 및 결과 분석을 통해 학생 개인의 성취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컴퓨터 기반 학생평가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활용 역량을 반영하는 방식"이라며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맞춤형 평가 문화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선 교사들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CBT 평가의 실효성 부족과 교사의 고유한 평가권 침해를 우려한다. 도내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는 "수학 교과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수식을 쓰고 풀이 과정을 전개해야 하는데,

공책에 따로 문제를 풀고 컴퓨터에는 정답만 입력하는 반쪽짜리 시험이 과연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초등교사는 "내가 가르친 내용을 교실에서 직접 평가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인데, 교육청이 내려보낸 일괄 문항을 쓰는 것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각 학급의 실제 수업 진도나 난이도와 맞지 않는 문제가 출제돼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면 그 부담과 책임은 오롯이 현장 교사가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민 기자

도체육회, 이비스 스타일 엠베서더 전주와 협약

체육인 복지 확대

전북도체육회가 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해 대외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19일 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이비스 스타일 엠베서더 전주 시티센터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달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호텔에 이어 두 번째이다. /장정철 기자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 상호 발전 및 체육관광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이에 각종 정보 교류는 물론이고 호텔의 객실 및 연회장 등을 체육인들이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으로 전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고창 신재효판소리공원 산공부' 참가자 모집

내달 8~12일까지 접수

전북 고창군이 전통예술 판소리의 계승과 전승 활성화를 위해 '2026 고창 신재효판소리공원 판소리 여름 산공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판소리 산공부는 전문 소리꾼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 시기를 통해 자신의 기량이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업이다. 특히 동리 신재효 선생의 판소리 정신이 깃든 고창에서 전국의 명창과 소리꾼들이 함께 모여 전통 판소리의 예술적 가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판소리 지도자 및 관련 대학으로, 참가팀은 1회당 7일 일정으로 운영된다. 팀별 12명 이내 신청 가능하며, 고창

군은 산공부 장소와 숙소를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내달 8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는 사전 전화상담 후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고창군은 판소리 여섯 마당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의 고장으로, 한국 판소리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산공부를 통해 전통 판소리의 전승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전국 소리꾼들과 함께 고창의 문화적 가치와 전통예술의 의미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신재효판소리공원으로 하면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도문화관광재단, 타이베이서 전북 매력 홍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대만 타이베이 화산 1914 문화창의산업연구소에서 열린 '2026 K-관광 로드쇼 in 타이베이'에 참가해 대만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북 관광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로드쇼에서 전북 관광 통합 홍보를 주도했으며, 전주관광재단·익산문화관광재단·군산문화관광재단·고창문화관광재단·순창발효관광재단 등 지역별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공하며 공동 홍보에 함께했다. 현장에서는 전주의 한옥과 미식, 익산의 역사문화자원, 군산의 근대문화 관광자원 등을 중심으로 홍보가 이뤄졌다. 행사 기간 동안 전북 홍보부스에는 3일간 4,000명 내외의 방문객이 찾았으며, 전북 홍보부스에서는 한국 전통놀

이 체험을 운영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부스에 머물며 전북 관광 정보를 접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재단은 한국관광공사 추진하는 '중부관광의 해'와 연계한 홍보도 병행했다. 특히 전주 가뭄축제 연계 관광상품의 현지 판매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며 전북의 미식문화와 지역축제를 대만 소비자에게 알렸다. 전북 중국어권 SNS 팔로우 이벤트에는 2,0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전북 관광지별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공하며 광인지도 조사에도 1,500명이 응답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주·익산·군산·고창·순창 관광재단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전북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알리고, 현장에서 확인한 높은 관심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고창농악보존회, 내달 서울·광주 공연

(사)고창농악보존회가 전통연희와 시네마영상, 미디어아트 결합한 창작공연 '시네마X 레퍼토리 : 사이닝'을 서울과 광주 2곳에서 선보인다. 서울은 내달 5일 서울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고, 광주 공연은 내달 7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진행된다. '사이닝'은 고창농악의 당산굿, 판굿, 풍장굿 등 다양한 마을굿을 바탕으로, 한 소녀의 성장과 기억을 풀어낸 융복합공연이다. 기록 영상과 고창농악을 결합한 '시네마X' 형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 개인의 경험과 공동체의 시간을 무대 위에 담아낸다. 지난해 초연 이후 서서와 무대 구성을 보완해 더욱 확장된 형태로 선보이며, 장면의 흐름과 인물 간 관계성을 강화하고

고창농악 특유의 장단과 몸짓, 현장성을 보다 밀도 있게 구현했다. 특히 이 작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주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작품성과 예술적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2025년 초연 당시 평론가들은 '사이닝'에 대해 "기억을 통해 전통을 현재의 감각으로 재구성한 작품", "풍물극의 생동감을 무대 위로 옮겨온 시도"라고 평가하며 전통예술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흥애림 연출은 "사이닝은 고창농악의 기록과 삶에서 출발한 작품"이라며 "곳이 지닌 공동체적 감각과 기억의 정서를 오늘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여름철 전력난 생활속 에너지 절약방법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 냉방온도 1°C 높이고 실내온도 26°C 유지**
에어컨·선풍기 함께 사용시 20~30% 절약
- 시원차림으로 물맴시 실천**
시원차림 실천하면 최대 10% 절약
- 냉방영업 중 출입문 닫기**
- 고효율 LED조명 사용하기**
- 영업종료 후 옥외조명은 소등!**
-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기**

정읍시, 솔티마을서 ‘전통 떡 만들기’ 체험 성료

정읍시가 지난 16일 솔티체험휴양마을에서 가족 단위 참가자 30여 명과 함께 전통 떡을 직접 만들어보는 ‘떡, 문화가 되다’ 행사를 열고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알렸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공모로 선정된 ‘2026년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손으로 빚는 문화’의 5, 6월 세부 활동이다. 지역의 전통 떡 문화를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 전승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모시떡의 유래와 특징을 배우는 이론 수업으로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이어진 실습 시간을 통해 모시 인절미와 개떡을 손수 빚었다. 감리현 총괄이 이끄는 이번 전통 떡 만들기 체험과 모시떡 이론 교육은 내달 13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솔티체험휴양마을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전통 떡을 빚으며 우리 문화의 참된 가치를 느끼는 유익한 시간이었”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승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청년희망 네트워크 정기회의… 활동방향 등 논의

익산시가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해 청년 주도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18일 저녁 청년시청에서 제4기 청년희망 네트워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활동 방향과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제4기 청년희망 네트워크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 새롭게 선출된 위원장은 앞으로 정기회의 운영과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이끌게 된다.

이어 분과별 운영 방향과 청년 정책 제안 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청년희망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지역 현안과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익산시 대표 청년 참여기구다.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직장·학교 등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18~39세 청년들이 참여해 일자리·창업·주거·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역 문제 해결과 정책 제안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청년지원센터 청정시대 ‘함께 도전 데이’ 성황리 개최

정읍시청년지원센터 청정시대는 지난 14일 청년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하나인 ‘함께 도전 데이(DAY)’ 행사를 열고 신체활동을 통한 또래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참여 청년들이 지인과 친구를 초청해 함께 활동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연대감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 연령이 아우러져 즐길 수 있는 동시 참여형 게임을 중심으로 짜였으며, 참가자들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활력을 되찾았다.

특히 비슷한 어려움을 먼저 극복한 또래 지원단이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줘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18세부터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과정을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이다. 밀착 상담과 자신감 회복 과정, 취업 역량 강화 활동으로 구성되며 단기(5주)·중기(15주)·장기(25주)로 나뉘어 운영된다.

안테핑 센터장은 “청년들이 또래와 함께 몸을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받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사회적 연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조국당 군산 후보들, 공동출정”

‘클린선거’ 다짐… “사람과 실력을 선택 해달라” 간곡 호소

조국혁신당 군산지역 6·3 지방선거 후보 일동은 19일 공동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낡은 기득권 정치의 벽을 넘어 군산 정치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시작하겠다”며 본격적인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후보들은 회견문을 통해 “현재 군산은 산업위기, 청년 유출, 원도심 침체 등 중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선거철마다 화려한 개발 공약이 넘쳐났지만 정작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은 이유는 정치가 시민보다 기득권에 더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후보들은 군산의 오랜 정치 지형을 정조준했다.

이들은 “공천이 곧 당선인 패배의 일당 독점정치 속에서 군산과 전북정치는 활력을 잃어갔다”고 지적하며, “경쟁 없는 정치는 시민에게 오만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조국혁신당이 강력한 대안이자 새로운 경쟁자가 돼 정당들이 시민의 요구에 경쟁적으로 답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의 핵심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비전도 제시했다.

후보들은 “수십 년간 군산 시민들이 염원했던 새만금 개발의 이익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새만금 개발 이익의 군산 시민 삶으로의 환원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군산 조성을 약속했다.

또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및 항만·물류 활성화 △재생에너지 및 RE100 산업 육성 △AI·수소·데이터 센터 구축 △군산 관광 및 문화 발전 등을 아우르는 ‘시민 중심의 희망 정치’를 펼쳐겠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네거티브 없는 ‘클린선거’로 치러 군산의 정치 풍격을 높여겠다”고 다짐하며, 군산 시민들을 향해 “이번 선거만큼은 특정 정당의 안주를 허용하지 말고, 당이 아닌 ‘사람’과 ‘실력’을 보고 선택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공동출정식에는 조국혁신당 군산지역 단체인 청년연대 후보들이 참석해 원팀으로서의 필승 결의를 다졌다. /군산=지승길 기자

군산시, 재해예방 ‘안전망’ 강화

1,546억 원 규모 신규사업 4건 신청

군산시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재해예방 신규사업 확보에 본격 나서며 지역 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027년 자연재해예방사업으로 총 4개 지구, 1,546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기존 배수 체계만으로는 도시 침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지대 주거지역과 노후 우수관로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 위험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선제적 재해 예방사업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신규사업은 상습 침수지역과 재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발굴했으며, 단순 시설 보수가 아닌 도시 전반의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세분적으로는 △우수관로 및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미룡지구(466억 원) △사면 및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어청도지구(374억 원) △우수저류조를 설치하는 미원동지구(345억 원) △펌프장 증설 및 저류조를 조성하는 조촌1지구(361억 원)이다.

이 가운데 미룡지구와 조촌1지구는 집중호우 시 도로 및 주택 침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지역으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도심 배수 능력 향상과 침수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청도지구는 급경사지와 노후 배수시설 정비를 통해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원동지구는 우수저류 기능 확충을 통해 도심 내수배제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검토를 실시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선제적으로 마무리했다. 향후 하반기 선정 결과에 따라 2027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산시는 현재 6개 지구, 총 2,574억 원 규모의 재해예방사업도 병행 추진 중이다. 구암지구는 배수펌프장 및 저류지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봉·나운지구는 우수저류조 및 관로 정비를 위한 설계를 추진 중이다. 경포천지구는 펌프장 증설 및 노후 시설 교체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조촌·개야도지구 역시 2026년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춘호 안전건설국장은 “기후변화로 더욱 강력해지는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확보와 기존 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AI·디지털 산업 육성 속도

정현울 시장, AI 디지털 혁신센터 찾아 의견 청취

익산시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19일 어양동에 있는 ‘AI 디지털 혁신센터’에서 입주 기업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행정은 미래 전략산업인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 방향을 공유하고, 입주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현울 시장은 디엑셀과 마이크로엑스알, 현대농기계 등 센터 내 7개 입주기업의 주요 사업과 기술 개발 현황을 청취했다.

이어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협업 방안과 기술 지원 방향, 기업 성장 기반 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AI 디지털 혁신센터’는 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조도와 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등을 통해 조성된 기업 지원 공간이다.

시는 2024년 선정된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을 통해 데

이터 기반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센터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며 기업 입주 환경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센터에는 기업 입주 공간 10개소를 비롯해 교육실과 회의실, 데이터 보관실 등이 마련돼 있으며, 전북테크노파크가 우리 운영을 맡아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AI 디지털 혁신센터는 디지털 경제 도시 익산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초기지”라며 “입주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익산시>

익산시, 어린 참개 5만 마리 방류

생태계 회복 기대

익산시가 만경강 생태계 회복과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어린 참개 방류에 나섰다.

익산시는 19일 만경강 일원에서 지역 어업인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 참개 약 5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외래어종 확산 등으로 위협받는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풍요로운 어장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개는 하천 바닥의 유기물을 섭취해 수질 개선에 기여하는 동시에, 체적으로 성장하면 지역 어업인의 소득원이 되는 고부가가치 수산 자원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번에 방류된 참개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 연구센터에서 생산한 우수 종자로, 질병 검사를 거쳐 자연 적응력이 뛰어난 개체들로 선발됐다. 방류 후 2~3년이 지나면 20cm 안팎까지 성장해 만경강 내수면 자원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방류를 통해 만경강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태계로 위협받는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풍요로운 어장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개는 하천 바닥의 유기물을 섭취해 수질 개선에 기여하는 동시에, 체적으로 성장하면 지역 어업인의 소득원이 되는 고부가가치 수산 자원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공무원들, 토마토 농가 일손 보태

정읍시 감곡면과 여성가족과,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30여 명이 지난 15일 정읍시 공무원들, 토마토 농가 일손 보태

정읍시 감곡면과 여성가족과,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30여 명이 지난 15일 정읍시 공무원들, 토마토 농가 일손 보태

청 공직자들은 무더운 비닐하우스 환경 속에서도 서툰 손을 보태며 실질적인 일손 부족을 겪는 감곡면 대산리의 한 토마토 농가를 찾아 8700㎡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순따기 작업을 도왔다.

토마토 순따기는 고품질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 알맞은 시기에 손질이 많이 가는 필수 농작업이다. 하지만 영농철 인력난으로 농가가 제때 작업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야간 보행환경 조성사업’ 완료

월명공원 조명시설 등 설치

군산시는 시민들이 월명공원 무장에 나눈길을 야간에도 밝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월명공원 무장 애나눔길 야간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야간 시간대 조명시설 부족으로 보행 안전과 범죄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월명공원 무장애나눔길 900m 구간에 LED 조명 423개를 설치해 야간 보행성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협의

해 CCTV 3개소를 설치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월명호수 무장애나눔길을 야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됐으며, 야간 경관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 활용도 증대와 공원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간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월명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익산시, 청년 체류형 창업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창업 아이디어를 키우는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는 체류형 청년 창업 프로그램인 ‘로컬체인지 슝스쿨’을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1박 12일 일정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로컬체인지 슝스쿨은 익산시가 행 정안전부의 ‘고향올래(로컬벤처)’ 사업을 통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역사·문화·산업 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익산청년시청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강의와 지역 탐방, 산업 견학, 네트워킹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먼저 미륵사지와 왕곡리유적 등 백제 역사 현장을 탐방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익산 농산물과 지

역 기업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가능성을 모색한다.

또 하립 산업 견학 등을 통해 지역 산업 기반을 이해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발표하며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네트워킹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 체험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가능성을 탐색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익산시는 고향올래(로컬벤처) 사업으로 12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슝스쿨을 비롯해 △청년 창업자와 전문가를 연결하는 교류 플랫폼 ‘슝스쿨’ △전국 청년 창업자 대상 지역 역사 현장 탐방 투어 ‘헤리티지 슝스쿨’ 등을 진행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시, 기업·청년 맞춤 사업 추진2(題)

‘퀵스타트 프로그램’ 공모 선정

김제시는 지난 15일, 산업통상부 주관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국 조지아주가 1967년부터 운영해 온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도입한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으로, 투자기업의 공장 가동 시기에 맞춰 업종·직무별 기본교육과 현장 실습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실제 채용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사)전북산학융합원과 함께 올해 말까지 국·도비 2억 2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투입해 (한국물드김제) 신규 채용 연계 2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최대 275만 원의 교육훈련장려금도 지원된다.

사업 참여기업인 (한국물드김제)은 123억 원을 투자해 지평선산단에 친환경 상용차 사출부품 생산공장을 오는 2027년 8월까지 신설 예정이다.

시는 신규 사업장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 내에서 직접 양성·공급해 기업의 초기 인력수급 부담을 줄이고, 지역 청년층의 안정적인 취업 기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형근 투자유치과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역에서 직접 양성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의미”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 양성 정책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9일까지 ‘청년 LINK’ 참가자 모집

김제시는 청년 취향 네트워크 프로그램 ‘2026 김제 청년 LINK’ 참가자를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 김제 청년 LINK’는 지역 내 미혼 청년들이 최근 후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인위적인 커플 매칭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트렌디한 취미 콘텐츠’를 매개로 자연스러운 소통과 정서적 교감을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운영되며 드로잉 수업, 가죽 공예, 요리 수업 등 다양한 조별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된다.

모집 인원은 남녀 각 20명씩 총 40명 내외이며, 참가자격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김제시 소재 또는 연고가 있는 직장 재직 중인 25세~39세 사이의 미혼 청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김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이메일(syeon113@kore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활력을 찾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동료들과 건강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청년 주거지원, 취업 청년 정착수당 등 미혼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인구 활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인돌유적에서 보내는 특별한 하룻밤”

1박 2일 가족 선사캠프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 박물관과 (재)문화유산마을은 2026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족 체험 프로그램 ‘고인돌 야생가족 선사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인돌 유적 인근에 조성된 청동기시대 마을 재현 공간인 죽림선사마을에서 진행되는 1박 2일 캠프형 프로그램이다.

‘고인돌 야생가족 선사캠프’는 5~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5월 23~24일, 6월 6~7일, 13~14일, 7월 4~5일, 9월 12~13일, 10월 10~11일이다.

선사 의상을 직접 만들어 입고, 고인돌 유적을 해설과 함께 탐방하며 선사시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토기 만들기, 사냥 및 탈곡 체험, 선사 악기 연주와 예술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불 피우기와 토기에 밥 짓기, 화덕 요리 등 ‘선사인의 부엌’ 체험과 함께 모닥불을 활용한 토기 굽기, 달빛 아래에서 즐기는 판소리 버스킹 등 색다른 야간 프로그램도 마련돼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참여는 사전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회차별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유산마을로 문의하면 된다.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이번 선사캠프를 통해 자연과 유적 속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고창군>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이번 선사캠프를 통해 자연과 유적 속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김상욱)와 19일, 지역 내 고립 위기에 처한 독거노인 세대를 발굴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쓰레기 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인 A 어르신은 오랜 기간 홀로 생활하며 생긴 우울증과 거동 불편으로 인해 집안 내부뿐만 아니라 마당까지 쓰레기를 방치해왔다.

해충과 악취를 풍기는 오물들이 가득한 쓰레기 봉투가 마당과 집 안에 겹겹이 쌓여 있어, 어르신의 건강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10여 명의 기동대원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마당과 집 주변에 쌓여 있는 부패한 쓰레기 봉투를 재포장하고, 수년간 방치된 폐기물 약 1톤 정도의 분량을 수거해 통행로를 확보하고 악취 제거와 해충 박멸을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쓰레기가 걷히고 난 마당을 본 A 어르신은 “몸이 아프고 마음도 지쳐 쓰레기봉투 하나 내다 버릴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마당과 집이 이렇게 깨끗해지니 눈물이 난다”며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26개 주요사업 반응 분석 및 대응 방안 논의

고창군이 2027년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19일 세종시에서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대응 현지 전략 회의(2차)’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해리 동호~금평간(국도 77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포함한 26개 주요사업(총사업비 2969억원)에 대해 부처 반응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군은 중앙부처의 예산안이 마감되는 이달말까지 지속적으로 부처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6월부터는 기획예산처

예산심의에 집중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김영식 권한대행은 정부세종청사 방문을 통해 고창군 현안사업이 2027년도 부처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도교통부 이유우 도로시설안전과장을 만나 해리 동호~금평간(국도 77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150억원)을 건의했다. 이 구간은 노을대교 건립 시 고창군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관문이자 서해안권 광역 교통망의 핵심축이지만, 도로 폭이 2차선으로 협소하고, 선형 불량으로 도로개선이 시급한 구간이다. 특히 향후 고창종합테마파크,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등이 조성되면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인 도로망 구축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외, 농식품부 강혜영 농업정책과장을 만나 서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24억원)을 건의했다. 고창군은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전국 최대 규모인 303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했다. 현재 대상면에 전국 최초로 건립된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를 포함해 총 2개소를 운영 중이다.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김영식 권한대행은 “고창군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주요 현안사업들이 부처 단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중앙부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 확정

8월부터 재배 시작

김제시는 2026년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입주 청년농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5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4.4ha, 2개동) 입주 청년농 4팀 12명 모집·선발을 완료했다.

이번 모집에는 총 8팀 23명의 청년농업인이 신청했으며, 선발 절차는 필기(30%), 서류(30%), 면접(40%) 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2026년 김제시 임대형 스마트팜에

신규로 입주하는 청년농은 오는 8월부터 토마토·딸기·오이·엽채류 등을 재배할 예정으로 시설 임대료는 ‘공유 재산상 및 물품관리비 시행령’ 제31조를 적용해 임대 연간 약 35만원이며, 임대기간은 최대 3년이다.

이승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 고령화와 농지 감소,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예비 청년농의 창업과 지역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농촌체험관광, 무료 체험 운영

23일 부안댐 입구서 진행

부안군 농촌체험관광연구회는 오는 23일 부안댐 입구(적소천)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안군의 특색을 살린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현장 접수를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농촌체험관광연구회가 주최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전주기전대학이 후원하는 가운데, 요리 체험과 같은 식물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한지, 허브가네티 등 공예품 제작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체험 행사가 치러지는 부안댐 적소천의 아름다운 경관까지 더해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함께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체험관광 품목별 연구회는 농가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조직화한 농업인 자율 연구모임체로 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고 있다.

चे명심 회장은 “이번 행사는 농촌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부안군, 산사태 주민대피훈련 시행

자연재난 대책기간 맞아 실질적 대처 능력 강화

부안군은 19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맞아 과거 산사태가 발생했던 보안면 우동리 일대에서 2026년 산사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산사태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마을 주민을 비롯해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변

산반도국립공원, 부안군산림조합, 관계 공무원 및 산림재난대응단 등 70여 명이 참여해 민·관·경·소방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긴박하게 진행됐으며 △산사태 정보시스템의 예측정보 수신 △상황 판단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산사태 예보 발령 및 신속한 상황 전파 등 단계별 대응 과정을 현장감 있게 재현했다.

훈련 종료 후에는 참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황별 산사태 대비법인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스마트

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산림재난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산림재난’ 앱 활용법을 적극 홍보했다.

김기원 산림정원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 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전 생애 완벽 책임”

출산부터 노후까지... 사회복지 분야 공약 발표

심덕섭 더불어민주당 고창군수 후보가 18일 사회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현행 출산장려금을 첫째 500만원까지 과격적으로 늘리고, 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5000명으로 확대하면서 출산부터 노후까지 고창군이 완벽히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심덕섭 후보는 지난 민선 8기 임기중 출산장려금을 첫째 300만원(기존 100만원)까지 인상했고, 산후조리비 200만

원은 지급과 출산육아용품 판매점 개소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고창의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왔다. 노인복지 분야 역시 ‘어르신 3대 보건의료 정책, 노인일자리 확충, 경로당 양곡배분 체계구축’ 등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심덕섭 후보는 민선9기 출산 축하금을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2000만원을 거쳐 다섯째 출산시 무려 1억원까지 전면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50억원 규모의 ‘동지센터’ 신설과 365일 24시간 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가동으로 보육 공백을 완전히 없앤

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육발전특구 예산 383억원 전폭 투자 및 강남구 학교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고창 출신 대학생에게 최대 300만 원의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심덕섭 후보는 “출산부터 노후까지 고창에서 사는 전 생애주기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신뢰와 결단, 강한 추진력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고창의 미래를 준비하겠다. 젊고 유능한 경제인력 한 번 더 심덕섭!에 큰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검산동 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시작

주민역량 강화 교육 나서

김제시가 오는 22일부터 검산동 성당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성당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건강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주민역량 강화 교육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스트레스 완화와 신체기능 향상, 건강관리 습관 형성 등 주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특히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여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성당마을회관에서 주

1회씩 총 12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참여 주민들은 다양한 건강 체험과 생활밀착형 교육을 통해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주민 간 소통의 기회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완 도시과장은 “새뜰마을사업은 단순한 생활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문화예술과, 영농철 마늘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부안군 문화예술과는 19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고,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모여 마늘종 제거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참여 직원들은 익숙하지 않은 농작업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활동은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추진 기간에 맞춰 진행돼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행정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가족센터 조부모 역할 지원 프로그램 성료

고창군가족센터(센터장 정혜숙)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조부모 역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 시에 자신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와 체험, 문화활동을 함께 구성해 조부모의 정서적 환기와 가족관계 향상에 중점을 뒀다.

지난 12일에 고창군가족센터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조부모 교육과 천연 샴푸·린스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행복한 조부모의 역할 이해 및 가족관계 향상’을 주제로 손자녀와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천연 샴푸·린스 만들기 체험도 실시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6일에는 조부모와 가족 35명이 함께 전주 일대에서 문화 투어를 했다. 참여자들은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라감영, 예솔마을 등을 둘러봤으며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초코파이 만들기 프로그램도 참여했다.

전주 문화 투어와 초코파이 만들기 체험은 세대 간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내며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정혜숙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조부모님들에게는 손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가족에게는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순창군, 복흥면 추령지구 마을하수도 조성

111억 투입 복흥면 정주환경 개선 2029년 완공 목표 행정절차 진행

순창군이 복흥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하천 수질 보호를 위해 '추령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군은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111억 원을 투입해 복흥면 추령·서지마을 일원에 마을하수도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활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처리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주요 내용은 하루 120톤 규모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총연장 3.36km 하수관로 정비, 64가구 대상 배수설비 설치 등이다.

현재 사업은 도 원가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입찰을 거쳐 올해 2분기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순창군>

특히 이번 사업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욕실·주방·화장실 등의 생활오수와 빗물 등 우수를 분리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오수를 배수설비와 하수관로를 통해 처리시설로 이송한 뒤 체계적으로 정화해 마을 환경 개선과 하천 수질 보호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농촌지역은 하수처리시설 부족으로 생활오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주민 불편과 환경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이번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공중위생 향상과 수질오염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군 관계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제1회 K드론남원시연합회 전국대회 성료

선수관계자 150여명 참가 FPV 드론레이싱 가능성 확인

남원시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제1회 K드론남원시연합회 전국 드론레이싱대회'가 전국 드론레이싱 선수와 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K드론남원시연합회가 주최한 전국 단위 드론레이싱 대회로, 남원 관내 드론 관련 기업과 지역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원 소재 FPV 드론레이싱 전문기업 ㈜K DRONE SYSTEM이 개발한 운영 플랫폼이 적용됐다. 이 시스템은 드론의 게이트 통과 여부와 비행 기록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고정밀 LED 게이트를 활용해 경기 운영 정확성과 관람 편의성을 높였다.

FPV 드론레이싱은 최근 국내외에서 미래형 레저스포츠이자 첨단 드론기술을 접목한 경기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원시는 그동안 드론스포츠 교육, 유소년 드론대회, 드론 관련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관내 단체 주도 대회도 지역 드론스포츠 기반 확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드론레이싱 선수와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남원을 방문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드론스포츠 교육·대회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드론산업과 연계한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드론스포츠 교육·대회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드론산업과 연계한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드론스포츠 교육·대회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드론산업과 연계한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드론스포츠 교육·대회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드론산업과 연계한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팀, 춘계실업연맹전 활약

하야시다 리코 개인단식 금메달 윤규상 혼합복식 동메달 획득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팀이 지난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순창군공설운동장 실내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2026 순창 춘계 한국실업소프트테니스연맹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순창군 체육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실업소프트테니스연맹과 전북특별자치도 소프트테니스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순창군청 남·여 소프트테니스팀 선수 14명이 출전해 열린 경기를 펼쳤다.

여자 개인단식 부문에서는 하야시다 리코 선수가 결승전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또한 남자 혼합복식 부문에서는 올해 새롭게 영입된 윤규상 선수가 팀에



<사진=순창군>

빠르게 적응하며 뛰어난 경력을 발휘해 동메달을 획득, 향후 활약이 기대되는 유망주로 주목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감독진의 헌신적인 지도와 선수들의 꾸준한 훈련, 그리고 지역사회의 아낌없는 응원 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감독진의 헌신적인 지도와 선수들의 꾸준한 훈련, 그리고 지역사회의 아낌없는 응원 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충남교육청, 완주형 교육 모델 벤치마킹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방문 학교·지역 연계 교육모델 살펴

충청남도교육청 정책혁신과 학교혁신팀이 완주형 선진 교육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최근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선진지 방문에는 학교혁신팀장(장학관)을 비롯한 관계자 6명이 참석했으며, 완주군이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지역 기반 교육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 및 학교-지역 연계 교육 모델을 충남 지역 정책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교육청 학교혁신팀이 주목한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마을 교육 공동체, 학교-마을 교육과정, 마을 교사 연계 체계 구축 등 다양한 교육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완주군만의 독자적인 운영 모델은 현장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번 방문에서 충남교육청 관계자들은 완주군의 교육 통합 운영 체계와 주요 우수 사례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지역 기반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의견을 교환했다.

충청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역 연계 교육 사례가 무척 인상적이었다"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모델 구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선진지 방문을 계기로 지역 간 교육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우기 대비 예찰 강화

빗물받이 집중 점검 등 활동 방재사 전문교육 기반 수행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이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집중 점검 및 예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활동은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 배수 불량으로 발생하는 도로 침수와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난 '방재사 전문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한 단원들이 주축이 되어 전문적인 점검을 수행했다.

단원들은 최근 이수한 전문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히 정화 활동을

넘어 실제 비가 쏟아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집중했다.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은 장마철 기간 내내 상시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기상 특보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예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관계자는 "빗물받이는 폭우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배수 시설"이라며 "전문교육으로 다져진 역량을 활용해 주민들이 수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예찰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경력단절여성 예술치유 운영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오는 5월 말부터 9월까지 전북권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소한 하루, 사소한 기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위축을 예술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하고, 자기 회복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30~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운영돼, 돌봄과 육아 중심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그림과 색, 꽃을 매개로 자신의 감정과 하루를 표현하는 참여형 예술교육으로 진행된다. 작품 감상과 창작 활동, 이야기 나눔을 결합한 공감형 방식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감정과 생각을 부담 없이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5월 말부터 9월까지 총 4회 운영되며,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공 1층 세미나실에서 화당 15명 이내의 소규모 수업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종료 후 간단한 티타임과 한 줄 소감 나누기를 마련해 참여자들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정서적 환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술교육을 통해 시민 누구나 미술관에서 편안한 회복과 공감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전화 접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하천 살리기' 동참 메기 치어 12만여 마리 방류

순창군이 수산자원 증식과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18일 복흥면 추령천 일원에서 메기 치어 12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메기 치어는 전장 6cm 이상의 건강한 개체로, 어류전염병 검사를 모두 통과한 우량 치어들이었다.

군은 매년 동자개, 소가리, 붕어, 메기 등 다양한 수산종자를 지역 주요 하천에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족자원 증대는 물론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치어 방류 현장을 지켜본 한 마을 주민은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방류 사업을 추진해 주고 있어 앞으로 우리 지역의 어족자원이 더욱 풍부해지고 생태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족자원 증대와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12개 읍면 보건지소 '마음건강존' 설치

완주군이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사업을 위해 각 읍·면 보건지소 12개소에 '마음건강존'을 설치했다.

마음건강존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정신건강 정보를 접하고, 우울감 등 정신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한 상담으로 마음을 쉼길 수 있도록 돕고자 추진했다.

마음건강존에 마련한 마음 건강 감진 홍보물에는 정보부니(QR코드)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청년, 성인, 노인, 중독 관련 검진 문항을 담아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간단한 문항을 통해 현재의 정신건강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 상담 및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계 받는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안 전망을 구축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명란 건강증진과장은 "삶의 어려움과 마주할 때 누구나 우울이나 불안, 무기력과 낙담을 경험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부담 없이 검진과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전북 1호' 반려견 놀이터 새단장

약취·소음 민원 해소 이전 개장 시설 2400㎡로 대폭 확장 운영

남원시가 지난 2018년 전라북도 최초로 조성되어 지역 반려가족들의 사랑을 받아온 '요천생태습지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이전·확장해 지난 4월 30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번 이전 개장은 '전북 1호 애견 놀이터'라는 상징성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동안 이용객들이 제기해 온 약취 및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단장을 마친 놀이터는 기존 시설 인근에 위치했던 (구)환경사업소(농노처리시설)의 약취 영향권에서 벗어나 청정한 대기 환경을 확보했다. 또한, 인

접 파크골프장의 타격 소음으로 반려견이 놀란다는 민원을 적극 수용하여 소음 발생원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둔 주생면 중동리 260번지 일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시설 규모를 기존 1,600㎡에서 2,400㎡로 대폭 확장해 눈길을 끈다. 대형견과 소형견 구역을 엄격히 분리해 안전성을 높였으며, 내부에는 CCTV, 가로등, 음수대, 그늘막, 반려견 놀이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이로써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요천생태습지공원의 자연경관 속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깊이 교감할 수 있는 '복합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번 이전은 다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획 단계부터 시민들의 목소리를



<사진=남원시>

계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약취와 소음 걱정 없는 전국 최고 수준의 반려동물 친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약취와 소음 걱정 없는 전국 최고 수준의 반려동물 친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혁신 행정' 해외 공무원 집중 조명

스리랑카 연수단 완주군청 방문 주민참여·AI행정 우수사례 주목

완주군의 주민 중심 혁신 행정이 해외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19일 스리랑카 내무부 및 지방정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해외 공무원 연수단이 완주군청을 방문해 완주군의 혁신 행정 우수사례를 청취하는 등 주요 정책 현황을 벤치마킹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스리랑카 정부 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스리랑카 공무원 15명과 자치인재원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완주군은 '완주군 혁신 행정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정부 혁신 추진 방향과 대표 정책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완주군은 올해 정부 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해 11개 단위 과제 52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 혁신 우수 기관으로 총 7차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소개한 주요 사례 가운데는 '1일 군수제'와 '어린이·청소년의회' 등 주민이 직접 군정에 참여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완주형 주민참여예산제'가 큰 호응을 얻었다.

완주군은 주민 참여 예산을 매년 10억 원 안팎으로 증액해 왔으며, 농업과 문화 관광 등 신규 분야도 꾸준히 발굴

하고 있다. 또한 수익성이 낮아 민간 운영이 어려운 마을버스를 군이 직접 운영하는 '완주형 대중교통 체계'와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아동 옴부즈즈 사무소' 사례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방문단은 최근 완주군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 정책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스리랑카 공무원들은 주민 참여 기반 행정 운영 방식과 지방정부 차원의 혁신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종훈 완주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방문이 스리랑카 지방정부의 행정 혁신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자매결연 30주년' 中염성시와 협력 확대

대표단 염성시 방문 기념행사 참석 경제·교육·문화 교류 확대 협력

남원시가 중국 강소성 염성시와의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와 강소-한국 경제무역협력 교류행사 참석을 위해 19일부터 염성시를 방문, 문화교류를 넘어 경제·교육 분야까지 협력 확대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남원시립농악단이 함께 했으며, 중·한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된 30주년 기념행사에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연한평(嚴漢平) 염성시장을 비롯한 양 도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양 도시는 이날 '교류 협력 심화

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연례 상호 방문 체계 구축 △차세대 정보기술·바이오·부티 등 경제 무역 교류 확대 △교육·문화·체육 등 민간 교류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념식에서는 남원시 김병종 화백의 '화홍산수' 관화와 염성시의 '배롱나무 서화'를 기념품으로 교환했으며, 이어 남원시립농악단과 강소성 곡예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번 공연 교류는 염성시 공연단이 앞서 춘향제 행사에 참여한 데 이어 상호 방문 형식으로 추진됐다. 또, 양 도시는 평이후 공연 내에 우정을 상징하는 배롱나무를 식수하며 '100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다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특히, 이번 방문은 당초 오는 11월 개최 예정이었던 '강소-한국 경제무역협력 교류행사'가 5월로 앞당겨지면서 남원시-염성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방문단은 자매결연 행사와 함께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유학생 유지 및 교육 협력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SK신에너지유한공사 등 염성시 주요 산업단지를 시찰했다.

또 21일에는 상하이 화동 무인기기와 DJI 플래그십 스토어를 찾아 첨단 산업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예원과 우강무를 방문해 역사문화 관광자원 연계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도 찾을 예정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임실 치즈테마파크

AR 추리게임 '치즈 탐험대' 운영

임실군은 지난 14일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30여명을 대상으로 임실 치즈테마파크를 무대로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아이와 탐험 추리 게임 '치즈 탐험대: 지정한 신부의 일기'를 운영하여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실 치즈의 선구자인 허 지정환 신부가 남긴 1967년의 비밀 일기를 조사한다는 흥미로운 서사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테마파크 곳곳을 누비며 치즈의 진정한 가치와 역사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특히 이번 게임은 별도의 전용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통해 즉시 실행이 가능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각 단계마다 제공되는 힌트와 명확한 가이드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추리 미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게임은 총 6단계의 다채로운 인터랙션 미션으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치즈의 과학적 원리와 숙성과정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테마파크 내 주요 지점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통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는 평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꿀벌 감소 대응

뒤영벌 활용 화분매개 기술 보급

진안군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개체수 감소 및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꿀벌 소실대응 꿀벌 대체 화분매개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비를 포함한 총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주요 소득 작목인 멜론과 딸기 재배 단지 10.6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는 백운농협 멜론공선출하회(대표 전병호, 26농가)와 진안고원 딸기연구회(대표 정영복, 12농가) 등 총 2개소 38개 농가다.

꿀벌은 꽃의 꿀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꽃가루를 옮기는 대표적인 화분매개 곤충으로, 식량 생산과 생태계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질병 확산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이어져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뒤영벌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고 수정 효율 또한 우수해 꿀벌을 대체할 화분매개 곤충으로 주목받고 있다.

멜론과 딸기는 벌을 통한 수분이 작물의 품질과 상품성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인력 수정을 대체함으로써 노동력 절감은 물론, 기형과율 감소와 당도 향상 등 품질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축산분뇨 자원화

농가 상생 기반 마련

임실군이 지난 14일, 국립축산과학원과 합동으로 '축산 퇴·액비 품질 향상 및 부속도 관리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지원은 중동전정 여파에 따른 비료 가격 상승 등 농업 경영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가축분뇨를 양질의 자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축산·경종 농가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우 및 돼지 사육 농가를 방문해 현장 실태를 정밀 점검하고, 농가별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한우 농가에는 부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전수했으며, 돼지 농가에는 액비 저장조 운영 최적화 및 시설 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약취 저감과 비료 가치 상승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군은 이번 현장에서 파악된 애로사항과 데이터들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 적용성이 높은 우수 기술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부안, 로컬푸드 특별 할인전

업무협약 기반 첫 교류 행사
농수특산물 20% 할인 판매

진안군은 부안군과 함께 지역 먹거리 상생협력의 첫걸음으로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진안-부안 로컬푸드 상호교류 특별 할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할인전은 지난 4월 부안군과 체결한 '진안-부안 지역먹거리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교류 행사로, 양 지역의 특색을 담은 우수 농·수 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고 지속적인 지역 간 상생협력 체계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진안로컬푸드 전주호성점과 진안점, 부안로컬푸드 본점과 격포점 등 4개 직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상호교류 품목에 대해 20%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진안군은 진안고원의 자연을 담은 홍삼 가공품과 농특산물 등 16종을 선보이고, 부안군은 수산가공품과 건어물류



등 서해안 특산물 24종을 판매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내륙과 해안을 대표하는 지역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양 지역 대표 농·수특산물의 상호 교류·판매를 통해 직매장 활성화와 생산 농여가의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 마케팅 모델

구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행사가 지난 업무협약의 성과를 실질적인 교류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 마케팅을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직장인 점심밥' 지원

농축산부와 함께 추진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

무주군은 '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참여기업에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직장인의 점심 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한 외식 금액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외식 이용 금액의 20%, 최대 5개월)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



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해당 기업이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거나 지

급 예정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푸드플랫폼으로 전화(063-320-2780) 신청하면 되고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https://www.muju.go.kr) 무주소식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박은석 과장은 "고물가 시대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유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인구도 유입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 기회도 돼 결국,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노후 화장실 등 시설 개선 지원

임실군이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실 K-치즈·반려동물 등 지역특화산업 및 소상공인 일하고 싶은 정착 일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임실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900만원과 도비 5,600만원 등 총 6,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대표 산업인 K-치즈와 반려동물 산업 분야 기업과 소상공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구인난 해소와 장기근속 여건 조성, 지역 정착 기반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재, 임실군 관내 사업체의 약 86%는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업체로 상당

수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노후된 휴게실이나 화장실 등 편의 및 복지 시설에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구인난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실군과 임실군 로컬JOB센터는 관내 특화 산업 기업 및 소상공인 5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분야는 화장실·휴게실·사위장 등 복지시설과 작업장 조명·환기시설 등 근무환경 전반을 포함한다. 또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여건에 따라 신청금액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참여분턱을 낮췄다.

올해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돼 여성농업인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진 기관은 남원의료원과 진안의료

원, 전주병원이며 남원의료원·진안의료원의 경우는 직접 병원에 방문하는 원내검진 방식으로 전주병원은 올해부터 7개 읍·면을 순회하며 검진하는 이동검진으로 운영된다.

검진대상자인 여성농업인은 '농업e지'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장수군은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해 검진비 22만원 중 2만원 내외만 자부담하면 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여성농업인 건강 챙긴다

특수건강검진 지원 확대

장수군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올해 검진 지원 인원을 기존 180명에서 272명으로 늘리고 지원 연령도 기존 만 51세부터 70세까지에서 만 51세부터 80세까지로 확대했다.

검진 대상자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1946년부터 1975년 사이 출생한 여성 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와 공동경영

주, 경영주 외 농업 종사자다. 이번 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 5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실시한다.

또한 군은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돼 여성농업인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진 기관은 남원의료원과 진안의료

원, 전주병원이며 남원의료원·진안의료원의 경우는 직접 병원에 방문하는 원내검진 방식으로 전주병원은 올해부터 7개 읍·면을 순회하며 검진하는 이동검진으로 운영된다.

검진대상자인 여성농업인은 '농업e지'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장수군은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해 검진비 22만원 중 2만원 내외만 자부담하면 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관계기관 합동 야간 점검

장수군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장수읍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장수군청, 장수경찰서, 장수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서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장수읍내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읍내 숙박업소, 일반 음식점, 편의점 등을 방문해 △청소년

년 이상 흡수 금지 사항 준수 여부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및 제공 금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관련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최근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악용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업주들에게 신분증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안내하고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금지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업주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며 청소년 보호 문화 확산에 힘썼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 최선

치매안심센터 무주경찰서와 맞손

무주군은 19일 무주군보건의료원 4층 치매안심센터 배움터에서 무주경찰서와 '치매 환자 등 실종 제로화(Zero 0)'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치매 환자 등 고위험군의 실종 예방과 실종 시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홍찬표 무주군치매안심센터장과 김은희 무주경찰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뜻을 모았다.

특히 △치매 환자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정보 공유, △치매 의심 환자 검진 연계 및 지문 사전등록 활

성화, △치매 조기 검진 및 예방관리 사업 지원, △치매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협약식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함께 치매안심센터 주요 사업 및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조기검진실과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홍찬표 무주군치매안심센터장(무주군보건의료원장)은 "치매 환자나 의심 환자 등 고위험군의 실종을 막고 또 줄이는 일은 지역 사회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며 "무주경찰서와의 협약이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 대상

임실군은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전북대학교, 임실군보건의료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조사 결과는 지역 보건의료사업 계획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총 17개 영역 168개 조사문항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는 가구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1: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조사원 6명은 전북대학교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통합돌봄사업 상담창구 운영

어르신 맞춤형 복지상담

진안군은 19일 군 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상담창구 운영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복지 정보를 보다 쉽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4월 통합돌봄사업 홍보를 위해 복지관을 방문했을 당시, 어르신들의 관심과 문의가 많았던 점을 반영해 정기적인 현장 중심 상담의 필요성을 느껴 추진하게 됐다.

이날 상담창구에서는 의료·요양 통

합돌봄사업의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등을 안내하고,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어르신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상담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현재는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향후 건강 악화로 돌봄 공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필요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상담에 참여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정읍 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 발달장애인들과 영화 관람

정읍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는 지난 15일 정읍 CGV 영화관에서 발달장애인 12명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사회참여 행사를 열고 일상 속 문화 경험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센터 이용자 12명이 영화 '슈퍼마리오 갤럭시'를 관람하며 웃음과 설렘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영화 관람이 끝난 뒤에는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문화공간을 찾기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나 공백으로 문화 관람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고 발달장애인에게 따뜻한 추억과 동행의 시간을 선물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행사에 참여한 한 이용자는 "영화가 재미있어서 웃다가 눈물까지 흘렀다"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겨 영화를 또 보러 가면 좋겠다"고 즐거워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금빛태양광, 지역 사랑 담아 착한가게 동참

익산시 춘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9일 '금빛태양광(대표 천진석)'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금빛태양광은 태양광 설비와 전기·에너지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다. 이웃을 위한 나눔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으며, 이번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매일 전기기부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확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천진석 대표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현 민간위원장은 "뜻깊은 나눔에 동참해 주신 금빛태양광에 감사하다"며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 금산면協, 어르신 부부 '리마인드 웨딩'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영중)가 지난 18일, 관내 어르신 부부 8쌍을 대상으로 가정의달 리마인드 웨딩 지원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자 민·관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를 좀더 행복하고 활기차게 만들고자 추진됐다.

이날 메이크업, 헤어 및 사진 촬영까지 담당해보는사대 재능기부

로 이뤄졌으며, 특히 어르신 부부 한쌍씩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 지루함이 없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큰 호응을 얻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소품 만들기 체험 활동이 진행되어 흥겨운 분위기를 더했다.

사진촬영을 마친 한 어르신 부부는 "시간이 흘러 주름은 늘었지만, 오늘처럼 곱게 화장하고 한복을 입으니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이다"라며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금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관내 어르신 부부 8쌍을 대상으로 가정의달 리마인드 웨딩 지원 행사를 추진했다 <사진=김제시>



남원향교, 선비의 품격 '아호' 수호지례 전통행사 진행

남원향교(전교 김시열)은 지난 17일 강학당에서 사월 초하루 분향례를 마치고, 아호(雅號)가 없는 장의들에게 아호를 지어 내리는 수호지례(授號之禮)의 뜻깊은 전통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남원향교 류하용 총무수석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국민예례-수호례-전교인사-축사-장의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아호는 18인의 장의에게 내려졌다.

아호(雅號)는 우리 문화에서 부모님이 지어 주신 본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조심스럽게 여기는 예(禮)에서 시작됐으며, 수호지례(授號之禮)는 벗이나 스승이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확실한 닉네임이 있는 아에게 고상한 아호를 지어주는 전통예례이다.

남원은 예로부터 "충효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남원향교는 유림에게 호를 지어주는 전통행사를 시행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김시열 전교는 인사말에서, "잊혀져 가는 수호지례(授號之禮)를 시행하는 우리향교의 시도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새로 받은 아호가 앞으로 하시는 문화활동이나 일상에 큰 힘과 품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시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외식·나들이 진행

어르신 정서적 소외감 해소

남원시노인복지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3일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외식 및 나들이 프로그램 '방방곡곡 행복밥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KBS강태원복지재단이 주최한 '2026년 어르신 외식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마련됐다. 평소 홀로 생활하거나 가족 교류가 적어 외로움을 겪는 어르신들

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어르신들은 행사 당일, 능이오리 백숙으로 여유 있는 점심 식사를 즐기며 건강한 한 끼를 함께했다. 이어 교룡산성 일대로 이동해 봄 기운 가득한 산책을 즐겼고, 인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정서 교류 시간도 가졌다.

/남원=김종원 기자



군산 금호칼라 스튜디오, 취약계층 장수사진 지원

군산시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와 금호칼라 스튜디오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나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아름다운 한 장의 추억'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장수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금호칼라 스튜디오는 사진 촬영비와 액자 제작비 전액을 후원하며, 김희철 대표가 직접 나운 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



김제 백구면지사협, '짜장면데이' 나눔 행사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9일 관내 행복한 보금자리 노인요양시설에서 5월 '짜장면데이'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짜장면데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일 마을 경로당 등을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손수 만든 짜장면을 대접하는 특화사업으로, 따뜻한 식사 나눔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지역사회 돌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임근석 기자



정읍 원예농업협동조합, 적십자사 모금 캠페인 참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김홍식)는 정읍 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대건)이 '쌈슴이가 바쁜기업' 모금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읍 원예농업협동조합은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에 위치한 지역 농협으로, 전라북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며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대건 정읍 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은 "의미 있는 나눔을 고민하던 중 적십자사의 재난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공감해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꾸준한 나눔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조합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 쓰레기가 자연분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一事一言〉



양심선언 청년을 사지로 모는 비정한 '조폭 정치'를 규탄한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자신들의 정치적 과오와 추잡한 비위 의혹을 덮기 위해 양심선언을 한 청년들의 장래를 무참히 짓밟는 정치가 과연 정상인가. 최근 전북 정가를 뒤 흔들고 있는 '정읍 식사비 대납 의혹'과 이를 둘러싼 민주당 이원택 후보 측의 행태를 바라보며 도민들은 경악을 넘어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 국회 기자회견장에 서서 현장에서 목격된 진실을 당당히 증언했던 청년 2명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피고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현실은, 대한민국 기성 정치가 얼마나 비정하고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단면이다. 본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사지로 내몰린 청년들의 편에 서서, 기성 정치권의 추악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권력을 쥔 기성 정치인들의 불법적 기부행위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 늘 '청년과 약자를 대변하겠다'고 입버릇처럼 외치던 민주당이 정작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자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청년들을 향해 '정치공작의 배후', '기획된 조작설'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며 무차별적인 사법 고발로 응수했다.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법적 책임을 힘없는 청년들에게 떠넘기며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비겁한 보복이자 횡포다.

특히 이원택 후보 측이 보여준 '말 바꾸기' 행태는 비겁함의 극치다. 당시 식사비 결제 경위를 두고 초기에는 "내가 직접 계산하고 거스름돈까지 받았다"고 당당히 주장하던데, 카드 전표와 식당 주인의 일관된 진술이 나오자 "카운터에 현금을 두고 나왔다"는 식으로 말을 수시로 바꿨다. 지도자라면, 그리고 몇몇한 후보라면 사실관계 앞에 엄중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공백한 변명 뒤에 숨어, 오히려 일관되게 진실을 말해온 청년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며 사법 당국의 칼날 앞에 총반이로 내세웠다.

이미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술지 도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원택 후보와의 공모 여부까지 수사 의뢰한 마당이다. 사법 기관과 선관위마저 엄중하게 바라보는 이 사안을 두고, 오직 자신들의 선거 승리와 안위를 위해 청년들의 미래를 인질로 잡는 것은 기성 정치가 부릴 수 있는 가장 악질적인 권력의 횡포다. 청년들이 느꼈을 공포와 배신감이 어떠했는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정치는 세대 간의 연대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전북에서 벌어지는 민주당의 정치는 청년을 오직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다. 선거철마다 청년 정책을 쏟아내며 표를 구걸하던 이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라면 청년들의 인생쯤은 가볍게 짓밟아도 좋다는 식의 조폭식 연대감에 사로잡혀 있는 셈이다. 이러한 비정한 정당 정치가 계속되는 한, 전북의 청년들에게 미래는 없다.

이제 도민들이 기성 정치의 이 잔인한 잔혹사를 끝내야 한다. 권력을 이용해 양심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진실을 말한 청년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세력에게 전북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당적(黨籍)보다 무서운 것이 민심이며, 어떠한 권력도 민심의 힘을 이길 수 없음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원택 후보는 지금이라도 비겁한 해명과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도민과 청년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다가오는 6월3일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사나 의원을 뽑는 날이 아니다. 기성 정치의 오만함과 비정함에 신음하는 전북의 청년들을 구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권자 주권 선언의 날'이 되어야 한다. 전북의 청년들과 힘겨운 도민들은 말이 아닌 책임지는 정치를, 억압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선택할 것이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으며, 청년들의 양심을 짓밟은 기성 정치는 6월 3일, 준엄한 심판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사설

교육보다 거래가 앞선 선거, 도민은 분노한다

전북교육감 선거가 끝없는 의혹과 폭로전 속에 진흙탕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책과 교육 철학은 사라지고 압수수색과 녹취록, 금품 의혹만 남았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선거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참담할 따름이다.

최근 불거진 이남호 후보 측 언론 관련 금품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만약 특정 언론인에게 우호적 보도를 기대하며 금품이 오갔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와 언론 신뢰를 동시에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해야 할 존재이지 권력과 거래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 캠프의 공보라인은 후보의 메시지와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이다. 그런 위치에서 벌어진 일

이었다면 "개인 행동"이라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교육감은 무엇보다 도덕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조차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는다면 어떻게 학생과 교사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전북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미래 경쟁이 아니라 정치판의 나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표절 논란, 단일화 뒷거래 의혹, 금품 의혹까지 이어지는 현실은 도민들에게 깊은 피로감과 실망만 안기고 있다.

수사기관은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동시에 후보들 역시 법적 책임 이전에 도덕적 책임 앞에 먼저 서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 출발선이 불신과 의혹이어서는 안 된다.

▲오늘의시

강 / 광 제규

내 가슴속
건너고 싶은 강
하나 있었네

오랜 싸움과 정처 없는
사랑의 탄식들을 대불고

인도 물소처럼 참범참범
그 강 건너고 싶었네

흐르다가 세상 밖
어느 숲 모퉁이에
서려온 등불 하나
걸어두고 싶었네



시인 약력 : 1954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 숭실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사평역에서'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서울 세노야', '참 맑은 물살' 등이 있고 기행 산문집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이 있다. 1992년 제10회 신동엽 창작기금을 받아 시집 '참 맑은 물살'을 펴냈으며, 동서문학상을 수상했다. 오월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순천대 문창과 교수를 지냈다.

기고

쌀 소비량, 숫자 너머의 의미



쌀 소비량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다. 국가의 식생활 변화, 농업 구조의 변동, 가계 소비 습관, 나아가 식량안보의 방향까지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국내 연간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2025년 쌀소비량조사에서도 1인당 소비량은 53.9kg으로 전년보다 3.4% 감소했다. 숫자만 보면 '쌀을 덜 먹는다'는 해석이 쉽지만, 그 이면은 훨씬 복잡하다.

첫째, 쌀 소비량은 한국인의 식생활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여준다. 예전에는 밥이 식사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빵·면·즉석 식품·배달음식 등으로 식사 양상이 다변화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식문화의 서구화, 아침 결식 증가, 1인 가구 확대 등이 쌀 소비 감소의 주요 배경으로 지적

된다. 즉, 쌀 소비 감소는 곧 식습관의 변화를 의미한다.

둘째, 쌀 소비량은 농업정책의 결정을 비추는 거울이다. 쌀이 남아돈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재배면적 감축, 시장격리, 타작물 전환 같은 정책이 힘을 얻는다. 실제로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과 수급 조절용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가구부문 쌀 소비는 감소했지만 사업체부문 쌀 소비는 증가하는 등 소비 구조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총량 감소가 아니라 수요의 재구성이라 하겠다.

셋째, 쌀 소비량은 식량안보의 미래를 가늠하게 한다. 논 면적은 한 번 줄이면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 국제 정세나 기후위기로 곡물 수급이 흔들릴 때, 국내 생산 기반이 약해져 있으면 위험은 더 커진다. 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위기 시 국민의 기본 식량을 떠받치는 핵심 자산이다. 따라서 쌀 소비 변

화는 "남은 쌀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보다 "어떻게 식량안보 체계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한다.

넷째, 쌀 소비량은 농촌의 현실과 농가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다. 소비가 줄면 가격 불안이 커지고, 가격 불안은 농가 소득에 직격탄이 된다. 특히 벼농사는 단순한 작목 하나가 아니라 농촌의 경관, 노동참여, 지역경제,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쌀 소비량 변화는 곧 농촌의 생존 구조 변화를 뜻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식탁의 변화, 정책의 선택, 농촌의 미래, 식량안보의 수준을 함께 보여주는 지표다. 숫자만 보고 "쌀을 덜 먹는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말하는 사회적 변화를 읽어야 한다. 쌀 소비량 추세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 농업 지키는 일이고, 더 넓게는 우리 식량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이인석 농업연구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행인)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타임스 TIMES 자연보호 캠페인

전북의보물,
갯벌과 철새를 지켜주세요.

거친 능선 위에 펼쳐지는 한계 도전

완주 대둔산

대둔산 백패킹 프로그램



6월 11일~14일 '대둔산 백패킹 프로그램' 개최 완주 자연·산악 특성 반영 4가지 코스 기획

완주군이 대둔산의 독특한 지형과 거친 능선을 무대로 삼아 대한민국 산악 익스트림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군은 오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대둔산 도립공원과 완주군 일원에서 '대둔산 백패킹 프로그램'을 개최하며, 대둔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웃도어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산을 오르는 차원을 넘어, 완주의 자연경관과 험준한 산악 지형의 특성을 극대화한 네 가지 맞춤형 코스로 기획됐다. 완주 9경을 잇는 장거리 트레일부터 은하수 아래를 걷는 트레킹까지 총 250명의 정예 인원을 모집해 완주만이 가진 익스트림한 매력을 전국의 아웃도어 마니아들에게 각인시킬 예정이다.

▲52km의 한계 도전, 완주의 속살을 걷는 '장거리 트레일'

가장 압도적인 규모와 난도를 자랑하는 '완주 9경 장거리 트레일'은 2박 3일 동안 약 52km를

주파하는 강행군으로 꾸며진다. 참가자들은 6월 11일 오전 8시 완주군청에서 등록 및 안전 수칙을 전달받은 후 본격적인 여정에 오른다.

1일 차에는 두억마을과 중남산, 송광사, 오성한옥마을을 거쳐 위봉산성과 안수사에 이르는 22km 구간을 약 10시간에 걸쳐 소화한다.

첫날 무궁화 오토캠핑장에서 숙박한 이들은 2일 차에 동봉마을과 창포팜스테이마을, 전북천리길 운문골 마실길을 지나 대둔산 글램핑 캠핑장까지 약 18km를 더 나아간다. 마지막 3일 차에는 천등산 정상을 거쳐 대둔산의 상징인 마천대에 도달하는 12km 코스를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완주의 산세를 따라 걷는 이 코스는 참가자들에게 체력적인 한계를 시험함과 동시에 완주의 수려한 자연유산을 온전히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완주 9경의 사계는 백패커들에게 잊지 못할 장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둔산의 비경을 정복하다, '완주와 백패



킹'의 조화

대둔산의 험준한 능선을 직접 정복하는 완주 프로그램도 기대를 모은다. 6월 13일 하루 동안 진행되는 '대둔산 완주 하이킹'은 구름다리, 삼선계단, 마천대, 낙조대 등을 잇는 15km 구간을 8시간 내외로 완주하는 코스다.

가파른 절벽과 능선을 타는 이 코스는 대둔산의 거친 지형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백미로 꼽힌다.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능선 위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산악 동호인들 사이에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특히 1박 2일 일정의 '대둔산 완주 백패킹'은 산악 스포츠와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산촌 문화를 제시한다. 1일 차 완주 일정을 마친

참가자들은 저녁 시간 축제장에서 펼쳐지는 미디어아트 공연과 DJ 파티에 참여하며 산정의 고요함과 축제의 열기를 동시에 만끽하게 된다. 이는 정적인 등산 문화에서 탈피하여 젊은 층과 소통하는 역동적인 아웃도어 축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참가자들은 축제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이른날 배수지와 취수장을 거쳐 이팝나무길로 이어지는 은하수 둘레길 트레킹으로 여정을 마무리한다.

▲초보자를 위한 '은하수 둘레길'과 철저한 안전 관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6월 13일과 14일 각각 운영되는 '은하수 둘레길 트레킹'은 노론이계곡과 솔모퉁이계곡을 지나는 약 3.4km의 완만한 코스로 구성되어 대둔산의 정취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약 2시간이 소요되는 이 길은 수려한 계곡미와 이팝나무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힐링 코스로서,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최고의 휴식처를 제공한다.

완주군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5월부터 두 달간 백패킹 코스 전 구간에 대한 대

대적인 사전 점검에 나선다. 코스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축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접수 방식을 도입해 참가자들의 안전 수칙 숙지와 등록 확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행사장 주변의 주차 관리와 응급 의료진 배치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행정적 지원 또한 빈틈없이 준비 중이다.

▲아웃도어 거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완주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대둔산을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전국의 백패커들이 동경하는 '아웃도어 메카'로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둔산 백패킹은 단순히 걷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캠핑장과 팜스테이마을을 숙소로 활용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관광객 유입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완주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장기적으로 산악 관련 융합 산업과 가이드 육성 등 '산악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선거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 합니다. 홍보물의 완성도가 후보의 첫 인상을 결정 합니다.

Design Plan



Digital photography



Editorial Design



Printing



6.3 지방선거 ONE-STOP 선거 홍보 제작팀

유한회사 준테크 TEL-063-226-5888 E-Mail_jhchoi3075@daum.net

대홍정판사 TEL-063-254-0056~7 E-Mail_hi056@hanmail.net

아트엔포토 TEL-063-251-0987 E-Mail_ap0987@daum.net